

[기획]

광주일보 제2기 독자위원회 2차 회의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제2기 2차 회의가 지난 6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김경태(광주은행 홍보팀장)·김미희(광주 YWCA 소비자상담실 간사)·김종윤(광주검도협회 전무이사)·문병훈(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서기준(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묘숙(2006 광주비엔날레 도슨트)위원·이병철(변호사·조선대 법학과 교수)·이영선(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회장)·진원장(조선대 미술대학 학장)·최희동(본사 은랜클럽 회원·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씨 등 위원 11명 중 10명과 조경완 편집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광주일보만의 색깔·정체성 필요하다”

▲김경태(이하 김)=광주일보가 읽기 편해진 것 같다. 기사에 활용하는 통계와 도표가 많아졌고 기사에 해당 분야 전문가나 관련자, 독자의 멘트가 삽입되면서 현실감도 느낄 수 있었다. 1월 1일부터 게재되고 있는 기획 기사 '이젠 실리다'는 인상 깊었고 지역 사정을 감안한 이슈를 뽑아냈다는 점에서 적절했다. 반면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게재된 '중국진출기업 현장을 찾아서'기사는 일본 사례 등을 포함시키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는 아쉬움도 있다. ▲서기준(이하 서)=오피니언면은 독자 참여 공간이니, 독자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의 경우 2~3면에 전진, 배치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해 12월 27일자 1면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국사와 세계사를 역사로 통합해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광주일보도 여기에 맞춰 광주·전남 지역 역사·유적지·공원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사화해야 한다.

▲김종윤(이하 종)=‘공인 빼앗는 공룡마트’라는 시리즈 기사는 잘 봤다.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불편해 하는 부분을 파악, 적절히 다뤄야 하는 것이 언론이다. 중앙지구 월드컵경기장과 영주체육관 일대는 시민들의 체육 공간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날씨 좋은 경우에는 새벽 1~2시까지 운동을 하는 시민들도 있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 운동하는데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겼다. 단발성으로 넘기지 말고 독자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쟁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영선(이하 영)=광주일보 사실은 지나치게 관점이 편향적이다. 지난 1월 9일 19면 '현대차 사태, 노사 원칙 바로 세우는 게 기뻐야'를 비롯해 '경영위기 아랑곳 않는 현대차 노조, '반기업정서 확산해야'라는 제목의 일련의 사실은 경영자 논리로만 쓰여진 것 같다. 상당수 독자들은 이런 점에서 광주일보를 아예 보지 않는다. ▲최희동(이하 최)=기사는 균형을 갖춰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신문은 색깔



광주일보 제2기 독자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독자위원들이 지난 2개월간의 광주일보 보도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크럽다'는 제목으로 기사화된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의 광주콘서트에 티켓 판매 부진을 이유로 공연 하루 전날 전격 취소했다는 내용은 지역 문화계 현실을 보여준다. 또 답답한 지역 문화계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선진 미술관에서 배운다'시리즈물도 좋았다. ▲최=최근 무안공항 개항 및 광주공항 준차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쪽이든 광주나 전남지역 여행업계 등에서 반발이 심하다. 광주일보가 어떻게 유지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히 판단하고 분석한 뒤 확실한 논조를 가지고 치고 나가야 한다.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 아닌가. 자신감 있게 논조를 펴야 한다. ▲미=최근 초등학교 등에 경제 학습을 나가면서 아이들·부모·교사 모두 편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경제 교습법 등을 신문에 다뤄줬으면 한다. ▲병=거론되는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도

‘이젠 실리다’ 지역 정서 변화 촉구 돋보여 상반된 주장 같은 면 배치, 독자 혼란 불러

▲이묘숙(이하 이)=‘이젠 실리다’라는 기획 기사는 스크랩한 뒤 아이들에게 읽게 했을 정도로 인상 깊었다. 그런데 21면 'Fun & Feel'면에 실리는 내용 등은 당혹스럽다. 일간지가 스포츠신문화되는 것 같아 자녀와 함께 신문 보기가 버겁고 민망할 때가 많다. '내남자가 바람났다'의 저자 송강희의 누드 토크라는 제목의 게재물은 과연 무슨 의도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 게재하는지 모르겠다. 유머 코너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읽기에는 지나친 유머가 게재되고 있다. 광주일보 독자가 모두 40대 이상 성인인 아니다. 초·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읽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지난해 12월 15일 19면 오피니언면의 경우 테마 칼럼란에 '미의 신화'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외에도 치중하는 세태를 지적했는데, 바로 밑에는 '성형수술 담당하게 합시다'라는 제목의 의료 칼럼을 실었다. 독자는 혼

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색깔이 틀리듯 광주일보도 나름의 색깔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일보의 경우 최근 자신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도청 이전 문제를 보면 광주일보의 경우 도청 이전 전부터 줄곧 반대하는 논조를 보였다. 이 때문에 당시 일부에서 광주일보 건물이 금남로에 있으니까 도청 이전할 경우 땅값이 떨어져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지금 봐라. 광주일보가 당초 말했던 것처럼 광주 공동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진원장(이하 진)=지난 5일자 15면 '박진현의 문화카페-광주는 거장을 만나고 싶다'는 기사에서 오지호 화백(1905~1982)의 탄생 100주기를 맞아 기획한 특별전 등을 다뤘다. 굉장히 반가웠고 좋았다. 하지만 살짝 다뤄서는 안된다. 기획 기사로 쟁겨야 한다. 유명한 지역 화가 작품이 광주에서 만나기 힘들어서는 안

된다. 반한 운동도 필요하다. 문화가 돈이다. 타 지역 사람들이 이 곳으로 와서 유명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미희(이하 미)=지난 6일자 1면 '실물가 최고 87% 이상 급등'이라는 제목의 기사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쇠고기값이 10% 올랐다고 썼다. 이 문장은 자칫 미국산 쇠고기 개방 반대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줄 수 있다. 한미 FTA가 진행중인데, 미국산 쇠고기와 물가 상승을 연관지어 지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문병훈(이하 문)=광주·전남지역 시민 사회의 가장 큰 두가지 이슈가 법원의 '수완지구 원가 공개 판결', '일해공원'문제다. 하지만 광주일보의 경우 이와 관련된 기사가 너무 적다. 위치도 눈에 띄지 않는다. 수완지구 원가 공개 판결 기사의 경우 찾을 수 없다. 광주일보는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 다루지 않고 소극적으로 처리할수록 '광주일보의 정체성'문제가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이병철(이하 병)=지난주 한 모일에 나가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강연을 마친 뒤 모임 참석자들이 광주일보에서 최근 기사화된 '이젠 실리다'라는 내용과 많이 일치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번 독자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많이 기사화된 것 같고 고맙고 책임감을 느꼈다. 문화면에 실리는 '선진 미술관에서 배운다'라는 기획물은 잘 다룬 것 같다. ▲서=지난달 30일과 16일 14면에 게재된 '하이틴 공부합시다. 로비스트 양성화 법안 논란'기사와 '하이틴 공부합시다(개헌)'관련 기사는 적절했다. 특히 개헌 기사는 헌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기사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했다. '국립공원 40년, 공원 천국 캐나다에서 배운다'라는 기획물도 현재 지구 환경에 대한 소중함, 경각심을 일

“사설 2~3면 전진 배치, 독자 목소리 들려야” 지역 현실 보여준 ‘문화수도 부끄럽다’ 적절

개우는 측면에서 유익한 기사였다. "2007 도약하는 향토우수기업"이라는 제목의 기획물은 경제인들에게 의욕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좋다. ▲이=지난달 25일자 1면 "문화수도" 부

그들의 호반에 대한 생각과 입장 등을 기사화하면 한다. 구체화시켜 공약을 제시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을 들여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김지수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제2기 독자위원회 1차회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광주일보는 이렇게 지면에 반영했습니다. ◇광주는 과격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인상을 깰 수 있는 운동을 펼쳐 여론 주도해달라=광주일보는 올 신년호 2개면에 걸쳐 '테마 2007-이젠 실리다'특집기사에 광주·전남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을 8대 행동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 매주 월·화요일 기획시리즈로 '이젠 실리

다'를 연재하면서 ▲과격 이미지 빨리 벗자 ▲노사분규 지역기업 내문다 ▲5·18 정신 왜곡말라 ▲기업인·부자를 미워말자 등 현재까지 11차례 기사를 실었으며 독자들의 호평을 받고있습니다. ◇여성·문화관련 기사가 부족하다=올해부터 문화·생활면을 2개면 더 늘렸습니다. 늘어난 지면에는 문화·예술분야 기사 뿐만 아니라 주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의 생활기사가 채워지고있습니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해야 하며 광주일보가 여론을 주

도해달라=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둘러싼 많은 논의를 그때 그때 중요면에 머릿기사로 다뤘으며 특히 지난 1월 31일자 1면에는 광주시장·문광부장관등이 아시아 문화전당에 랜드마크 기능을 대폭 보강기로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방행정 비판기사를 더 강화해달라=광주시의 세하구 도시계획 사전누출 사건, 월드컵 공원 대형소품물 주차난, 전남도의 고위간부 인사이동후 업무혼선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비판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경동보일러. 광주 862)673-4981, 전남 010-9469-9373

세학년 세학기 세학기 SET 특별전. 다양한 교육용품과 가구. 다양한 브랜드의 책상, 의자, 책꽂이 등.